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0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음 2월 21일) 제225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체 익산에 등지

전북도-익산시-한솔케미칼, 신규 투자협약 체결... 익산3산단에 1256억원 투자 100여명 신규 일자리 창출

전북도와 익산시는 26일 익산시청 종합상황실(2층)에서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 정현을 익산시장, 조연주 ㈜한솔케미칼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솔케미칼의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에 신규 투자에 따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한솔케미칼은 익산시 제3산단 9만4,467㎡(만 8,558평) 부지에 2021년까지 1,256억원 투자, 100여명 고용 창출할 예정이며,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도 내 지역 취업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북도는 보고 있다.

(주)한솔케미칼의 신규투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동향에 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익산 제3일반산업단에 신설 투자를 계획하게 됐다.

(주)한솔케미칼은 지난 1980년 설립 이래 전정공장과 울산공장을 양축으로 하여 제지 및 섬유, 반도체 등에 사용되고 있는 과산화수소를 시작으로, 라텍스, 제지용 케미칼, 고분자응집제, 차아 환산소다(SD), BPO(Benzoyl Peroxide)에 이르는 정밀화학 분야는 물론이고 전자재료, 박막재료 등 전자 소재 분야까지 기술 및 사업을 확대 발전해온 국내 굴지의 중견기업이다.

또한, 한국퍼록사(주)를 모체로 1985년 영우화학(주)로 상호 변경, 1986년 과산화벤조일 공장, 차아환산



전북도와 익산시는 26일 익산시청 종합상황실(2층)에서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 정현을 익산시장, 조연주 ㈜한솔케미칼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솔케미칼의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에 신규 투자에 따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소다 공장 등 준공, 1989년 과산화수소의 KS 표시 허가 획득, 합작회사 삼영순화(주) 설립, 1989년 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 1994년 한솔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 1995년 7월 요소수지 공장 준공, 같은 해 11월 SB-LATEX 공장 준공, 2000년 한솔케미칼(주)에서 2004년 현재 상호인 (주)한솔케미칼로 변경, 2004년 이눔텍스 등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추진하였다. 자회사로는 (주)씨앤피케미칼, 삼영순

화(주), (주)이노웨이브가 있으며, 현재 최대주주는 조동혁 한솔그룹 명예회장이다. 앞으로도 (주)한솔케미칼은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시장 선도 제품을 개발하여 혁신적인 고객가치를 증대하고,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차별화로 경쟁우위를 실현하여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창의적

이고 투명한 글로벌회사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한솔케미칼이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줄길 당부 드린다"면서, "전북도와 익산시도 한솔케미칼의 성공적인 파트너가 되어 기업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바이오 등 신협력 다변화 도모

한-벨기에 정상회담

아시아·유럽 간 연계성 증진 지역·글로벌 현안 긴밀 공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빈 방한한 필립 벨기에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뉴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필립 국왕은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했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셀) 갈라 만찬 때 즉석에서 이뤄진 초청에 따른 것이다.

필립 국왕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본관에서 필립 국왕 내외를 영접했다. 필립 국왕의 부인인 마틸드 필립 왕비는 한복을 모티브로 한 투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두 정상의 인사로 시작된 환영식은 전통 의상대를 사열, 양 국가 연주, 양국 수행원 간의 인사 교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서 소규모 정상회담을 가진 뒤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소규모 정상회담에선 우리 측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형진 주 벨기에 대사, 유럽연합대사가 배석했다. 벨기에 측에선 피터 드 크렘 행정안전부 장관, 폴 드 위트 국왕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러진 확대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1901년 수교 이래 정치·교육·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최근 양국 간 교역·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데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화학·의약·물류 등 기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바이오·스마트시티·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다변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벨기에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도 요청했다.

양 정상은 ▲아시아·유럽 간 연계성 증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후변화 대응 등 지역 및 글로벌 현안도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독립의 횃불, 전주를 밝힌다'

전북도, 오늘 풍남문·한옥마을 일원서 '전국릴레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국가보훈처 주관의 '독립의 횃불, 전국릴레이' 행사가 오는 27일 전주풍남문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타오른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서울을 출발해 전국 주요도시에서 횃불을 들고 릴레이 하는 형식으로 전주는 15번째 지역으로 참여하

며, 전북도지사, 독립운동가 유족, 관내 기관단체장, 학생,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억하는 100년, 기억하는 100년'을 주제로 3월 27일 오후 2시 풍남문 광장에서 펼쳐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횃불 점화, 만세 재현, 횃불 봉송,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되며, 오후 2시 취태대의 나팔

소리를 신호로 풍남문이 열리면 만세재현행사가 시작되고, 횃불 전달 및 점화, 국민의례, 전북의 독립영웅 33인 토크,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전북의 독립영웅 33인 토크'는 전북도지사와 시민 학생 등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행사로,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전북지역 독립영웅을 위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성 기자

횃불 봉송은 100명의 봉송단이 풍남문에서 출발하여 경기전을 거쳐 전주향교에 도착한다. 봉송구간에서는 독립만세운동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독립선언서를 걸으면서 낭독하고, 전주 3·1만세운동을 표현하는 다양한 플래시몹 행사를 진행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제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고, 전북을 대표하는 독립영웅들을 도민들과 함께 기리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 100년 전라도가 더욱 발전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송하진 도지사,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군산 신기2교 등 안전조치 주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6일 재난위험시설 현장에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안전대진단 37일째를 맞아 군산의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에 참여한 송하진 도지사는 민간 전문가 등과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함께 하고 재난위험시설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교량은 모두 시설물안전법상 재난안전등급 B급에 해당하는 위험

시설로 현재 차량 통행 등이 제한된 상태이며 재 가설 또는 철거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송 지사는 이날 점검에 참여한 도 및 군산시 관계자들에게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하는 행정을 주문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5면 - 교육현장 일제재제 뿌리뽑는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